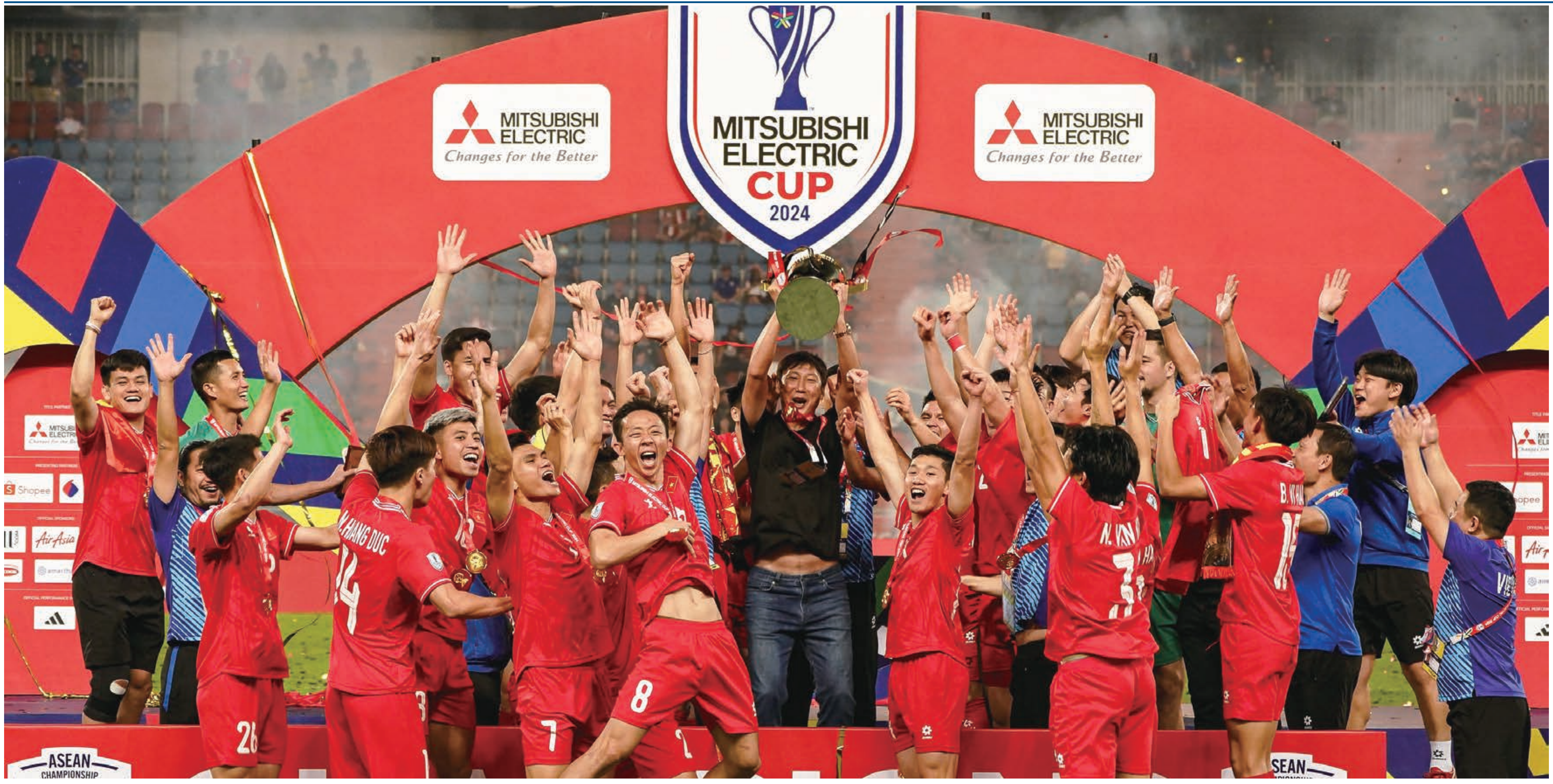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5일 오후 10시(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라차망칼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태국과의 2024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 축구선수권대회(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에서 3대2로 승리하면서 합계 스코어 5대3으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김상식(가운데)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과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엔 '김상식 매직'… 베트남 축구 또 새 역사

동남아 최대 미쓰비시컵 정상 日 감독 이끈 강호 태국에 3-2 승

부임 8개월 만에 6년 만의 우승컵 박항서 이어 장기 집권 발판 마련

'김상식호' 베트남이 동남아 최강 태국을 무너뜨리고 동남아시아 최대 축구 축제 2024 미쓰비시일렉트릭컵(이하 미쓰비시컵) 챔피언에 올랐다.

김상식 감독이 지휘하는 베트남은 5일(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라차망칼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태국을 3-2로 눌렀다.

3일 홈인 베트남 푸토 스타디움에서 열린 1차전에서 2-1로 이긴 베트남은 합계 5-3으로 앞서며 우승을 확정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이끌던 2018년 대회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로 동남아축구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5월 베트남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처음 나선 미쓰비시컵에서 우승을 지휘하며 주가를 한껏 높였다.

무려 6년 동안 베트남을 이끈 박 감독처럼 '장기 집권'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 출신의 이시이 마사타다 감독이 이끄는 태국은 대회 3연패이자 통산 8차례 우승 도전이 불발됐다. 김 감독은 더불어 '사령탑 한·일전'에서 승리했다. 베트남이 전반 8분 만에 상대의 실책성 플레이를 틈탄 득점으로 앞서나갔다. 충분히 걷어낼 수 있어 보였던 로빙 패스를 태국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다 놓쳤고, 베트남의 팜뚜언하이가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대를 갈랐다.

점차 흐름을 가져간 태국은 전반 28분 벤 데이비스의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해 1·2차전 합계 2-3까지 따라붙었다.

이번에는 베트남 미드필더 도안응옥탄의 실책성 플레이가 태국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응우옌쑤언손은 전반 32분 오른쪽에서 컷백을 넘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더니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응우옌띠엔린과 교체됐다. 이번 대회 7골을 넣은 응우옌쑤언손은 득점왕을 차지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PSG 13번 째 정상… 우승컵 들고 이강인 '찰칵'

佛 슈퍼컵 승리… 역대 최다 우승

이강인(사진)이 선발로 출전해 67분을 뛴 파리 생제르맹(PSG)이 AS모나코를 꺾고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에서 통산 1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PSG는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4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우스만 뎀벨레의 '극장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PSG는 1995년 시작된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통산 13번째(1995·1998·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2·2023·2024년) 우승을 맛봤다. PSG는 이 대회 역대 최다 우승팀이다. 트로페 데 샹피옹은 프랑스 리그1 우승팀과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 우승팀이 맞붙는 '슈퍼컵' 경기다.

PSG는 2023·2024시즌 리그1 챔피언이고, AS모나코는 2023-2024 리그1 준우승팀이다.

지난해 대회 결승골을 넣고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이강인은 이날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 후반 22분 교체될 때까지 한 차례 유효슈팅과 4차례 키패스를 비롯해 83%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며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아쉽게 공격포인트를 따내지는 못했다.

PGA 개막전 3위 임성재 세계 18위로

임성재(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5시즌 개막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임성재는 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 리조트의 플랜테이션 코스(파73·7천596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더 센트리(총 상금 200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몰아치고 최종 합계 29언더파 263타를 기록했다.

단독 3위에 오른 임성재는 상금 136만 달러(약 20억 원)를 받고 기분 좋게 2025년 새해를 시작했다.

이 대회는 지난 시즌 투어 대회 우승자와 페덱스컵 랭킹 50위 이내 선수들만 출전하는 시즌 개막전으로 올해는 총 59명이 나왔다. 임성재는 2024시즌 우승은 없었지만, 페덱스컵 랭킹 50위 이내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더 센트리는 한 시즌에 8차례 열리는 PGA 투어의 시그니처 대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시그니처 대회에는 총 상금 2000만 달러가 걸려 있으며 이전 시즌 페덱스컵 상위 50명, 해당 시즌 투어 챔피언, 세계 랭킹 30위 이내, 해당 시즌 페덱스컵 상위 선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선수들만 나갈 수 있다.

임성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3위라는 성적으로 끝내서 기분이 좋다"며 "시즌 첫 대회부터 시작이 좋아 올해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9일 개막하는 소니오픈에는 출전하지 않을 예정인 임성재는 "쉬면서 연습도 하고, 다음 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올해 더 열심히 해서 투어 3승을 이루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